朝鮮日報 夕刊朝刊合六頁

論說

政府信任案可決

佛下院徹夜討議後

(巴里十日發) 佛下院은徹宵討論을繼續한結果今曉四時에遂히二百六十九對二百四十七票로政府信任案을可決하얏더라

廣東政府諸政은

『보로』氏의發議로執行

(廣東九日發) 國民黨中央執行委員會理事會議의結果國民政府政治顧問『보로친』은中央執行委員會高等顧問으로國民革命軍總指揮蔣介石은中央執行委員長을各各兼任하기로되엿는데中央執行委員會는國民政府의指導監督者인國民黨의最高機關임으로今後廣東諸政은大槪『보로친』에依하야發議되고蔣介石에依하야執行될것가티看做되더라

張氏不遠歸奉乎

隨員에게歸奉命令

(奉天十日發) 張作霖은今夕八時隨員一同에게對하야歸奉命令을下하고臨時列車에乘할것을命하얏는데此에依하야觀하면張作霖은近히歸奉할模樣이더라

關稅會議再開엔

其先決問題가有하다

日本側兩全權談

(北京電) 十六日北京發大連及奉天經由歸日키로決定한日置全權은語하야曰 …… 議再開를通告하리라함에對하야 …… 決議中에는再開할수잇다하얏

日本內水稻成育

絕對樂觀不許

田中代議士 禁錮一個月

伊澤氏歸東 一兩日延期

露大使奉天着 總領事外會談

東洋赤十字社 第二次大會

中國兩鐵道 急行列車實施

李子爵으로 楊州農民 ◇……大恐慌

關西記者團 書面委員會

(關西記者團) 關西記者團第三回定期總會를開催하바去三日各委員會를開하엿든常務委員會의提案은去九日에야開票하야如左히決議되엿다 …

一、來七月二十七、八兩日間北宜川에서開催될 … 講演을開催키로 … 本社로부터一人 … 演의範圍는如左함

가、新聞雜誌의 …

나、記者團의必 … 探擇과 …

다、 …

라、朝鮮新聞雜誌 …

二、本團第二回大 …

新任講師 消息頓絕

蔚山亭子講所 紛糾事件後報

學父兄의幹旋으로 三四學年生登校

龍井各校夏休

四千哩鐵道網 臨時調査班

鐵道法案材料로 ◇……完成은今年中

各所에서要望하는線名

安州市區改整과 小資本商人大恐慌

大概放逐될모양인으로

端川消組 期成會

鐵山庭球大會

海蘇公普校 敎育研究會

龍井勞働會 講演은中止

文友會臨總 各種事項決議

全北青年聯盟 全州서總會開催

安州人心洶洶

市日은廢止狀態 ◇原因은旱魃이다

晉州紛糾는 圓滿解決

聯合會席上에서

金川李朝會盛況

頭道溝地方聯盟

知禮少年創立

縣貸討論會

新成講習會復興

夏期講演會

馬山에 蹴球大會

日本留學生主催로

三水農民夜學

永柔天主敎避暑會

各地春繭賣買

六月中元山手形

元山移出狀況

地方經濟

六月末組銀帳末

安城製糸組合創立

朝鮮貿易品展覽會

死牛盜盜

寸鐵

地方人事

第一回夏期女子講習會

第貳回平安庭球大會

全朝鮮女子少年壯年庭球大會

浦項市民音樂大會

歡迎會

固陋！頑冥！

The Korea Daily News.

Seoul, Korea, Sunday, July 11th, 1926.

WHAT'S WRONG WITH THE UNITED STATES?

By L. Y.

XI

The peoples of the East are awakening, and not so slowly as some would believe, and as they look to the United States more than any other nation because of propinquity, that nation has a big responsibility. Christianity in the East is linked more with the United States than any other nation, and it is no argument for the conversion of heathens for them to realise, just what those professing Christianity countenance in their own country. The East has had enough of idealistic schemes and now calls for practical works. If there is to be peace in the Pacific the time has now arrived for plain speaking and self-analysis on the part of all. China today is not the only country where "squeeze" and "graft" exist and where one's life is in danger from armed robbers and bandits. The official that would pollute a city's milk supply is, to me, entitled to be called a bandit and murderer.

The writer makes no apology for speaking his mind. He has many tried and trusted friends who know that he fights in the open and can take a hit as well as give one. Many of his friends in California and other parts of the United States know that he admires much that the United States have contributed to the betterment of world and humanity.

英文欄

米國印象 (十一)

慶北、江原接境地에 餓莩續出하는 大饑饉

이십여호의생명은사선에방황 이미죽은자도多數

경북봉화군(慶北奉化郡)의북부로 강원도녕월(江原道寧越)군과 삼척(三陟)군에 접경한디방을 비롯하야 우구치(牛口峙) 천평(川坪) 덕구(德邱) 애당(艾堂) 등디는원래험악한산중으로서 일반주민은감자울밥등으로유일한식료품을삼아근근히생활하야오던바 불행히작년수재로말미아마 울밥도열지아니하며 기타감자 모밀 강냥등농작물도전연의흉작으로 소득이업서 일반은공황중이든바 설상에가상으로 금년봄에도깃불이들어 일반은빈사디경이라는데 이말을들은 봉화군수서병린(徐丙麟)씨는직접그곳까지 출장하야 됴사한결과 현금구케치 아니하야서는 안될것이 이십여호이며 그곳에서조금떠러진강원도관내에서는 벌서다수의 아사자가 잇다하야 목하그구케책을강구중이라더라(봉화)

閔李王職長官 其後經過良好

지난팔일아츰에 노빈혈(腦貧血)로인하야 귀국을연긔하고 동경에서 치료중이던 민(閔)리왕직장관은 그후경과가량호하야 식사도순됴로 되엿슴으로 일수일후에도라올예뎡이라더라(동경)

作業練習中의 偵察機墜落

탑승자한명즉사 한명은긔지사경

십일오전여덜시 사십분경에 일본하포항공대 뎨륙긔련습생(霞浦航空隊第六期練習生) 상야삼등병조(上野三等兵曹)는긔상에서 작업훈련을 하기위하야 뎨사긔뎡찰학생(第四期偵察學生) 서강사랑삼위(西岡四郎三尉)의조종인 일삼식(一三式)뎡찰긔(偵察機)에동승하고 비행하던중 삼백『메돌』의 공중에서 돌연히발동긔에 고장이생겨서 비행장창고부근에 추락되여 긔톄는파손되고 서강중위는 무참한죽엄을당하고 상야병조는 빈사의중상에일으럿다더라(토포뎐보)

下關勞働同胞 日人과大衝突

朝鮮人死傷者多數 싸홈원인은일인에게잇다

구일오후 열한시경에 일본하관시외언도뎡(下關市外彦島町)강포(江浦)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의 일대란투가일어나 경상북도출생인 장법린(張法隣)(三○)은즉사하고 기타중경상자도 조선인측에서만 잇섯다는데 원인은공사장에서대단치안흔일에일본인이싸홈을 시작하야 일본도(日本刀)를가지고수십명의조선인에게덤비엇던까닭이라더라(하관)

三德活寫班 全北地方巡廻

충남을순회하고 전북에향하엿다

경부선 텬안역전(京釜線天安驛前)삼덕활동사진회(三德活動寫眞會)홍수희(洪祭憙) 금삼호장(金杉好章)량씨는식림(植林)파리(蠅)의발생예방 화(火)조심 비행긔등에대한여러가지활동사진(필림)을가지고 이미 충청남도(忠南)일대를 순회상영 하엿고 다시 전라북도(全北) 각군을순회상영코자 수일전에전주방면으로향하엿다더라

海州少年聯盟

許時模事件으로特派

해주군신흥소년회(海州新興少年會)에서 지난륙일해주청년회관(海州青年會館)에서열라든성토강연(聲討講演)은부득이한사정으로 중지되엿슴으로 즉시해주군련맹소년회(海州郡聯盟少年會)에서는 진상을조사하기위하야 해주신흥소년회간부인 박일(朴一)군을 특파로 보냇다더라(해주)

慶南馬山市에 第二許時模事件

가등이란일인간수장이 조선아이를몹시구타해

경남마산(馬山)에서는일본인간수장가등시장(加藤市藏)이가조선아동이 벽에다가 글시를썻다고 구두발길로 목과등을차서일시 소동을이르킨일이 잇섯는데 이제그자세한내용을 들은즉 지난칠일오후두시경에 마산부행뎡김태일(馬山府幸町金泰鎰)의장남재수(宰洙)(一○)가학교에서도라와서 놀러나오는길에 그이웃에잇는 엇던 일본인집벽에조치못한그림이그려잇슴을보고 그소년은 그것을 지워버리는것을 마침마산형무소(刑務所)에몰아오든 가등간수장(加藤看守長)은그것을 벽서하는줄알고 맥노코잇는 그소년의 뒤로부터목을 눌러잡고 자긔집인행뎡오십일번디에 끌고가서 문을꼭잠그고 함부로 등과목을발길로차며 심지어 거친주먹으로 흔접히고잇는 소년의눈압헤 견주기를 몃번이나하야 놀래인소년은『사람살려주!에그머니!』하며 드되어 오줌을싸고 인사불성까지 되엿슴에 그부친되는 김태일이가 달려가서 아이만다려가고 다른일이 업섯는데 그외일인팔일에 그소년은학교에 억지로갓섯스나 도뎌히 견대일수업서 그대로 몰아온것을본 그부친은 그제야 분함을참지못하야 권긔잔인한 간수장을차저 그말을하니 때리거나 발길로찬일은 업다고부인하며 목에상처가 잇는것은 목을잡은일이잇스나 [illegible] 손톱에상하게된것이라고 사과도 업슴으로 김태일은 더욱분개하야 진단을내어바다 고소를 데긔할터이라는바 이소문을드른사람들은 극무도하고 몰인정한자의행동을 분하게생각하야마지안는다더라(마산)

奇特한韓亨祚

과연드문소년

경남의령군화양면이리(慶南宜寧郡華陽面二里)한형조(韓亨祚)(一三)란소년학생은 금년봄에

酒類密輸者嚴禁

이천구백만불의예산으로

[illegible] 하야 국외에서주류(酒類) 밀수입자를 취톄코자 사천여명의취톄관을 동원하얏다는바 이는금주법을 실시한후 일곱해만에시행하는 대규모의 취톄로 재정차관(財政次官)『안도류ー스』씨는 이천구백만불(弗)의 예산으로 수입을취톄코자하는것이라더라

安邊에竊盜

汽車를따르며『엄마!엄마!』

뎡거장에일장비극

함남안변군위익면세포리(咸南安邊郡衛益面細浦里)뎡병석(鄭柄錫)(二○)은 금년봄부터당디에와서 술장사하는김순자(金順子)를 첩으로삼은후 본실되는 박화(朴和)(三○)를항상실혀하는 식부모까지 협력하야 음력오월이십일본실박화를쪼차보냇다는바 떠러저잇게되는 네아 [illegible]

可憐한어미와 불상한자식들

충청남도 서천군서천면 군사리(忠淸南道舒川郡舒川面軍司里)오칠칠번디에사는박우년(朴佑年)(三六)은 리성녀(李姓女)(三二)라는녀자를 팔년전에 안해로마저 동거하야오는동안에 아들형데를나케되야 큰아들은 여섯살이요 둘째아들은 세살이되엿는데 그안해리성녀는 지나간 칠일 오후두시경에 남편이품팔기위하야 큰아들성선(成先)이를다리고나간사이에 의복을가라입고 엄마찻는성열이만 남겨둔후 그날오후두시경에 자최를감추어바렷슴으로 박금 삼부자는울며불며 박정한녀자를 찻는중이라더라(서천)

水雲教主의巡廻와 迷信男女의雲集

팔일에평양에도착하야 미신남녀의숭배를바더

수운교는 그동안 권선내에사만여호의신도를 암암리에 어더노코 역시텬도교의 그제도와가티 공동미(共同米)를 거두어 동교본부를두고 정례가자못 막연하게 존재하엿는데 그교주리상룡(李像龍)은 얼마전부터 평양에 온다고 소문이 파다하더니 지난음력오월이십삼일에 개성(開城) 재녕(載寧) 황주(黃州) 흑교(黑橋)를 겨류하야 지난칠일평남대동군 룡연면 양지리(大同郡龍淵面陽地里)에잇는 교도의집에서 일숙하고 지난팔일오전십일시 십오분착 북행렬차로평양역에 도착하얏는데 일즉부터 최중나갓든평양교도팔십여명옹호리에 일행은도주박성호(道主朴性昊) 례주안교승(禮主安教承) 도강동섭(道康東燮) 종무리봉득우(宗務李鳳得雨)의 시종을 거나리고 완연히 관찰사의도임가든태도로 평양부 창뎐리(倉田里)사십륙번디 사십사호 수운교평양분감(平壤分監)에도착하야

남녀로소 다수의신도의 숭배를 바드며 동야구시경부터는 제단을 싸코제사를지냇는데 오히려십일일까지류숙하야 여러가지의식을진행한다는바 소위교주는칠십가량된로인으로보임에도불구하고 동신도는년령일백오세의고령으로부르는데 방금에이라도날듯이 텁비는가하면 또 엇던자는 부처와가티 위하는체 하면서 자긔네의 버릇를삽어 자못해괴한 늣김을 주엇는데 그중에도 멀리교주의 얼굴을보고저 온사람들의 가관인 신앙이 식자의주목을쓰을더라(평양)

進行列車에뛰어들어 無慘히自殺한青年

칠일밤에달성군에서

지난칠일오후 열한시경에 달성군수성면 신암동(達城郡壽城面新岩洞)부근을 긔차가진행하든중 돌연히 엇더한 청년이텰도로달려드러 치어자살한결과 긔차는약이십분간 정지후 진행하엿는데 자살한청년은년령약삼십세가량남자로서 죽은원인과 주소씨명은 미상하나 소지품(所持品)은 현금팔십사원을가젓슴으로 시톄는수성면사무소(壽城面事務所)에맛겨서가매장을하엿다더라(대구)

警察의干涉으로 聲討演說中止

해주에서

긔보 한바와가티 해주신흥소년회(海州新興少年會)주최로오일오후팔시부터 해주청년회관(海州青年會館)에서 개최하라든 허시모청토강연회는경찰서의주의로부득이중지하엿다더라(해주)

日人側組合에선 酒類를사지말자

송파주민의단결뎍태도 問題는漸重大化

광주군내(廣州郡內)의소자보주조영업자와 자가용자 면허까지취소하고 각면에 주류조합을설치케하는동시에 송파에서는 일본인에게만 한하야 허가를하고 조선인은 허가원을붓허가도 반려하얏다함은 이미본보에 보도한바어니와 근래에 일본인들은그독점권으로 인하야 주류의판매가날로 흥왕하야가는데 요사이에는동시를 리용하야 한잔두잔의 소매까지 함으로 소매업자들은 파리만날리고 잇게되얏다 그쇤아니라 종래에한초둥에 일원구십전하든것을 소매 영업자와 협의도업시 이원이십전을밧고 배달도아니하야주며 너무나불친절함으로 판매영업자들은 음식점영업조합(飲食店營業組合)을 조직하기로 수차협의를하고 인근면조선인 주류조합과 협의한후 한초둥에 이원에공동구입하기로결의를하엿스며 송파일본인조합에서는 사지안키로 불매동맹(不買同盟)까지하얏다는대 일반은 이문데에대하야 중대시한다더라(송파)

營業者組合急設

임원을선거후결의도잇서

별항 보도한바와가티 영업자들은지난륙일에김락규(金洛奎)씨집에모히여 일본인 주류조합에서 판매영업자들을 너무 불친절히하며 조합에서 소매까지하는것은 누리하다고 그태도를 통한이역이는일변 또한별안간 판매영업자들과는 아모협의도업시 한초둥에 삼십전식올리는것은 조선인영업자를 무시한다고 이것을대항키위하야 긴급이 영업자조합을조직하고 아래와가티 임원선거와 결의사항과 동맹서약에서명날인한후 폐회하얏다더라(송파)

◇任員

組合長金洛奎 會計千光有 書記高丙周 外任員若干名

◇決議事項

一、營業者들은何處의釀造者를勿論하고廉價를從하야共同購入함을目的으로함

一、但自己의任意로單獨히他處買入함을不得하고何時던지組合의意見을得한後에買入할事

一、組合員은組合을維持키爲하야酒類一斗價格外에十錢을加하야組合에納付할事

一、酒造組合에서營業者에게까지配達케할事

一、組合員中誰某를勿論하고規約을違反하는者는組合一同이禁止又는注意로處置할事

飲食店組合長 金洛奎氏談

이상보도한문데에대하야 음식뎜조합장 김락규씨는말하되『종래영업자들이 각각주조판매 하든것을 일조에취소를당한후 이긔회를어든 일본인들이 주류제조조합을 만드럿슴으로 할수업시 동조합으로부터 구입하야 판매하는 중인데 요사히에 이르러서는 그것이나마 소매까지도 [illegible] 판매자에게로오니 이것이나마 할수업스며 또는 몽조합에서는 별안간 판매자와는 아모협의도업시 탁주 한두에 일원구십전하 [illegible] 매업자의 생활을 [illegible] 케됨으로 우리 조합에서는 어느조합이던지 상당한값으로 공동구입을하기로 결뎡하엿습니다』라고말하더라(송파)

東亞報筆禍事件

金鐵中氏는無罪判決 기타량씨는벌금삼십원

김천군 대덕면장(金泉郡大德面長)리범숙(李範淑)이가 면서긔채용시에 뢰물바덧다는 사실을 게재한 동업동아일보 김천분국(金泉分局)장 필화사건은 권괴대덕면장 리씨의 고소로인하야 동사편집겸발행인 김텰중(金鐵中)씨와 권괴사실을 뎐하여준 공립보통학교교원 문장개(文長介)、동아일보 자인분국장 최반석(崔盤石) 삼씨는 지난오월 하순에 대구디방법원김천지텽에서 김텰중씨는 금고사개월、최반석、문장개량씨는각삼개월의 언도를밧고 즉시대구복심법원에 공소를데긔하엿다니와 지난륙일에 동법원에서 판결언도한결과 김텰중씨는 무죄로 최반석、문장개량씨는각각벌금 삼십원으로 되엿다더라(김천)

外上값안갚고 도로혀때린자

[illegible] 경에 권괴김억만이가 신흥선에게고기갑 이원오십전을 청구하엿든바 신흥선은 이에대하야 반말을사유하고 또는그반말을 반대한다는 리유로 김억만의면상(面上)을 되리바며 일주간치료할상처를 내엿슴으로 그와가티고소한것 이라더라(안변)

日本青森市 二百卅戶全燒

損害百六十萬圓 원인은제낭회사의실화

[illegible] 시경에일본청삼시 [illegible] 삼시간 [illegible] 손해는 일백륙십만원 [illegible]

海州邑에强盜

현금오십원강탈후 미구에붓잡히엇다

팔일오전 세시반경 해주남욱뎡(海州南旭町)일백삼십일번디리응진(李應鎭)의 집에 [illegible] 현금오십원을 강탈도주하엿다는데 [illegible] 해주서(海州署)에서는 곳범인을 엄탐중 [illegible] 사(刑事)의 손에 데포되엿다는데 범인은 일정한주소가업는 권괴자조강준(趙江俊)(二五)이란자라더라(해주)

南原雨量洽足

걱정이변하야깃븜

전남남원(南原)디방에는일천의 강우로 대부분의 이앙이 완료되엿스나 수량이부족한걱정이 잇든지 아니한 지난이일에온비로 이미흡족함을어든 동시에 농가에서는걱정이 변하며 질거움이충만하다더라(남원)

相愛會聲討演說

뎡강자만키를바란다고

상애회(相愛會)의폭행사건에대하야 마산에잇는 각단톄에서는 마산로동회、마산청년회(馬山青年會)、마산청년련합회(馬山青年聯合會)두단톄의주최로 오는일요일 오후팔시에 마산구락부에서 상애회죄상을 폭로하는 강연회를 열터이라는데 연뎨급연사는다음과갓다더라

相愛會罪惡實狀 金琪鎬

公認詐欺團의相愛會와私見 李潤

反動勢力의跋扈 金炳奎

青年은懸師가되자 金炳善

엇지하면조흘가? 金宗信

勞働者의覺醒을促함 呂海

沈水에嬰兒屍

부정녀가버린듯

충남강경남뎡(忠南江景南町)을 지나서 방수뎍(堤防)을따러 남쪽으로 약이정이 다못되는곳에 생후삼주일도못되야보이는영아가 보(洑)물에떠밀리여잇는것을 지난칠월칠일 오후네시경에 지나가든농부가발견하고 곳당디경찰에알리어 시톄는 이미렴검하얏다는데 그죽은까닭은 아마도부정한녀자의 소위인듯하야 사생아로내여버린모양이라더라(강경)

婦女二十餘名을 凌辱後에各處로賣却

동경경찰에데포된 可驚할稀代의色魔

부산부 수창동(釜山府水昌洞)출생의부녀유인으로 전과 삼범의김태황(金太黃)(三九)은경찰이수색중이든희대(稀代)의 색마(色魔)인 사실이 발각되야 그는지나간칠일에 동경칠헌뎡(東京七軒町)경찰서에데포되엿는데 그는명치(明治)사십년칠월에장긔(長崎)일한어학교(日韓語學校)를졸업한후 진해요새사령부(鎭海要塞司令部)에 통역으로잇든중부녀(婦女)를유인한가닭으로 삼년의형(刑)을밧고 다시 니긔시(尼崎市)에서니긔방적회사(紡績會社)녀공모집계원(係員)이되야가지고 녀자 직공들을꾀여작부(酌婦)로팔아먹은사실로 신호(神戶) 형무소에서징역이년을 복역하고 출옥한후 신호에서 일선융화회(日鮮融和會)를 조직하야 가지고 자긔가스스로회장이되야 일선융화를부르고 은연히 무엇을회책하다가 그것도 여의히되지안음으로 거짓일흠을가지고각처로몰아다니다가 또다시 계집아이를꾀여팔아먹고 동년팔월에 동경부하정교뎡(東京府下淀橋町)에서 송뎐가일(松田嘉一)의집에동거하고잇는 회목현(栃木縣)출생 조뎐귀태(篠田龜太)의 처 등산도리(藤山トリ)(三二)와정을통하야 꾀여가지고 횡수하시약송뎡(橫須賀市若松町)모료리뎜에 이백오십원을밧고 작부로 파라먹은외에 약이십명의 부녀를유인하야다가 팔아먹은 사실이 판명되엿는데 취됴하든 관리도 그의범죄에는 놀나지 아니치못하얏다더라(동경뎐보)

朝鮮物產商會 染織女工盟罷

주인의안해가녀공한넘을 무단해고한것이원인이다 堂堂한其要求條件

평양부창뎐리(倉田里)조선물산상회 염직부(朝鮮物產商會染織部)에서는 지난삼일 동염직부주인최룡훈(崔龍勳)의 안해되는사람이 염직부녀직공 홍덕규(洪德奎)를 아모리유도업시 돌연히해고(解雇)를 명하엿슴으로 권괴홍덕규는 즉시항거하야 해고의 리유만이라도 알자한즉 주인의 안해되는 사람은다만리유가 달리잇음이아니라 나의친한 사람한아를 그대신에너흘작뎡이라고 사리부당한 대답을하고 지난오일부터는우칠성(禹七星)(二六)이라는처녀를대입식히엿슴으로 권괴홍덕규의 억울은물론이며 일반녀직공들도 주인안해의 처치가 넘어도직공의인권을 무시하얏슬뿐더러 권괴홍덕규로말하면 소위견습생이라는 명의하에서 작년음력십월삼일 동염직부에 들어가서 근삼개월간은 한푼의 임금조차 안밧고 일하여주고 임금을정당히바다오기는 불과 몃달이안되는직공인동시에 일반 직공보다도 아는바가 만하서 공장전톄의 인긔자이든 터인데 아모리유도 업시 일조에 해고하엿다하야 해고당일부터 동염직소의 공긔는자못 불안하엿섯스며 홍덕규는 주인마누라의 독단뎍 행동이부당하니 리유를 걸거히 말하라고 주인최룡훈씨에게 질문하엿던바 최룡훈으로부터는 다만홍덕규가 나태한것과 당파를짓는경향이 잇다는것과 말이만하서 일반직공에게까지 방해를히군다는것을 긔록한후 압흐로도 만히주의하라고 편지를발하엿슴으로 당자이잇슨후도 홍덕규를 극구변명하야 녀직공들은 밤마다 삼사일간을두고 주인의행동에대하야 협의한바 지난구일에는 드되여 아츰녀덟시경에 직공회에서 결의한 요구조항녀섯개조와 결의진정문을 녀직공이십명이 서명날인하야 주인에게발송하고 이십사시간내로 회답을청구하야 만일불응할시에는 최후수단의동맹파업을단행하겟다하얏는데 녀섯개조요구조항은다음과 갓다더라

要求條項

〈決議陳情文(案)〉

一、무됴건으로직공을해고치말것

二、부득이한경우로해고할경우에는일반직공에게문의할것

三、주인과직공간에개인의감정으로해고말것

四、고주와기사외에는작업중에는공장내에간섭말것(고주는최룡훈씨에한하고 그외의사람이간섭시에는직공은불응할것)

五、직공의인권과인격을존중이할것

六、해고당한홍덕규는복직할것

交涉은破裂

해결은묘연해

별항요구조항에 대하야 동염직부주인 최룡훈씨는 일조건과 오조건만은 참작하겟스나 기타는불응한다 하엿슴으로 권괴서명날인한 이십명녀직공중십팔명은 동다섯시경에 드되어 동맹파업을 단행한바 이번파업사건은 순전히 임금문데를떠나서 인권유린을 분개함에긔인된것이라하며 그해결이망연하다더라

女職工組合

발긔를계획중

권괴십팔명의 녀직공은 구일밤아홉시경부터 부내창뎐리(倉田里) 리선숙(李璿淑)씨집에서회합이 잇섯다는데 이번일로써 약한그들은 단합의필요를늣겻슴으로 딸아서 녀직공조합을발긔할의향이만히 몰앗다더라(평양)

大同染織女工도

공장주인의아들로인하야 여러명이련맹퇴직하엿다

지난사월팔일 오전 평양부상수리(上需里) 대동염직소(大同染織所)주인의장남 황귀연(黃貴淵)이가 소녀직공다섯명 리동화(李東樺)(一五) 리경덕(李敬德)(一六) 손병걸(一六) 덕학도(德學道)(一五) 김광실(金廣實)(一三)에대하야 사형한사실이 잇섯다함은 긔보한지 오래거니와 권괴황귀연은 권괴다섯소녀로 말미아마 망신하얏다하야 항상 불쾌한낫츨가지고 잇슬뿐더러 그눈으로써 노리며서 슬이푸르게 굴므로 어린녀직공들은 마음이 안정되지못하든바 지난단오를 압두고 례년에의하야 공장 뎡원내에추천을 매어달라고 엇던소녀가청한즉 그러치안어도 싸움실만하는 계집애들에게 건네까지매어주면 큰일이 난다하고 거절하엿슴으로 이말에 사형바덧든리경덕은 분노하야 곳퇴직하여버린후 어려운김광실을 데한외에는 황귀연의말과 기타평소에노리는눈방울을 두려워하든 소녀들은 전부가월전에 퇴직하고말앗다는데 이후에 일반공장의그 직공의 쓰라린경험을 맛보고 잇는것을 력력히 추측할수잇다고이른다더라(평양)

獨子의溺死

목욕을하다가

지난팔일 오후한시경에 박천군동면당상동(博川郡東面堂上洞)에사는박뎡뎡(朴禎廷)(三九)의아들천금(千金)(一九)은부친을따라 박천군남면맹중동(博川郡南面孟中洞)부근에와서 김을매다가 점심째가되여 점심을 마치고 부근동모와가티 수리조합 연못에서 목욕을하다가 그만 깁흔곳에 거구러저서 나오지못하고 무참히죽엇다는데 그때가티 목욕하든아이들이 그부친에게 급보를 전하야 부친은 황급히현장으로 달려가는한편으로 맹중리 주재소에통지하야 순사까지 현장에출장하엿스나 시톄는 발견치못하고 매우애를 쓰던바 강서군 류차면조양리(江西郡柳次面朝陽里)오십번디에사는 리긔주라는 사람이 그곳을 지내다가 그아이의시톄를 발견하야 그사람에게는금오원을만드러주엇다더라(맹중리)

草根과木皮로 延命하는端川民

그들참혹한광경은 듣더히형언도못할디경

함남단천디방(咸南端川地方)에는아직까지 비가오지 아니하야서 한재가 태심하야 민심이자못 소동한바어니와 그래도 몃칠전까지는 비는안내려도 날마다흐리기는하고 비만오기를 바라던것이 별안간 삼사일재는 구름한조각볼수업는 쳔련에 나리쬐니는폭양은 곡식을 거의전멸시키어감으로 민심은 더욱놀어 이제는다죽게되엿다는 아우성소리가 이곳저곳에 넘치며 동정심은 더욱박약하야 감으로 업는놈은 쌀한되는한푼도 변통할도리가 업게되엇스니 더 개농민은 작년이 흉년이다도 새해의 농사나 희망이잇서야 업는자가 잇는자에게서 고리대금별지라도 어더쓸수잇는데 금년농사까지 아주절망이 되고본즉 농민은 아조할도가 업어쥐버린참경에이르럿슴으로 광천면 와동리남두일면개화산(廣泉面瓦洞里南斗日面開花山)가튼 몃몃곳무산농민들은 초근목피(草根木皮)로도 하로일식식을먹고 런명하야오는자가 한곳에 사오십호식된다하며 그중에 몃십호는 영졀식한지도 여러날이된다고던하더라(단천)

南市旱災 금년흉년

남시부근(南市附近)에는한재가 수십년래로 처음이라는데 발서 십일전부터 근방(近方)의 시내(川)와 못들은 물론 대소천(大小泉)까지 전부 말러 버렷스며 내중면 수꼿동안(內中面水串洞內)에는 수답(水畓)을작답지 못한것이수다하야 인심이 매우흉흉하다는데 만일이와가튼 상태로 수일만더가면 농작물에는 가망이 전부하다고 일반의공황는 날이갈사록 더욱심하다더라(남시)

富川老仙橋에 處女溺死

원인은실족하야

부천군서곳면신현리(富川郡西串面新峴里)공덕삼(孔德三)의장녀 공복임(孔福姙)이란당년 십팔세된 처녀는 지난륙일정오 열두시경에 계양면선주지리(桂陽面仙住地里) 압수라조하 간석리노선교(老仙橋)를지나가다가 실족이되야 그다리에서 [illegible]

告訴當하고 怯김에自殺

선동바다서사람을치고 고소당한겁겁내어자살

평남강서군 수산면운남리 곽신배(平南江西郡水山面雲南里郭信培)(四五)는 지난음력이십륙일 그부근 산중에서 큰밤나무에목을매여 죽은것을 엇던사람이발견하엿다는데 그죽은내용을 탐지한바에 의한즉 동디에는륙십여호의 곽문일족(郭門一族)이 녯적부터 대대로 살아오는곳이고 그곳에는 평양부고김진모(平壤府故金鎭模)의토디와 산림이잇서 그문족들이 경작하야내려오든바 몃해전에 그경작자들이부정하다하야 외디인으로 그토디를 관리케하엿슴으로 그문족에서는 항상불평을품고 그토디관리인을 뭇업시 미워하든중 금년을당하여는 박용옥(朴用郁)이란사람이 그토디를 관리하려와서잇는것을 크게싀긔하야 엇떠케하던지 저놈을 여긔서 못살게만들겟다는 악의를품고 그문족중에서 권괴곽신배를 선동한바 지난음이십일 권괴곽신배는 그선동을듯고 동디김선용(金善鏞)의술집에서 권괴박용옥과가티 술을먹다가 이말저말로 파차에말다툼을 시작하야 나종에는 서로구타까지 한결과 두사람이 다가티 온몸에중상을당하엿슴으로 권괴박용옥은 그진단서를 첨부하야 동군경찰서에 고소를데긔한바 권괴곽신배는 경찰서의호출장을 바든후 자긔도또한 고소하려고 엇던의생의진단서를 마타가지고 지난음이십이일에 경찰서로 갓다하나 [illegible]

불상한어머니 고약한자식들

광주군중대면거여리(廣州郡中垈面巨餘里)에사는배경천(裵敬天)의안해선씨(宣氏)는일쯕이 명준(明俊)과 삼준(三俊)이란 아들형데를나어 애지중지 키여왓는데 급기야장남명준은 부모를 도라보지안코 경성으로 다라나 안해를어더 화락한 살림을하며 둘재아들삼준까지 광주군돌마면갈현리(廣州郡突馬面葛峴里)어느집에서 머슴사리를하며 돌보지 아니하야 자긔홀노 남어도굼속에서 밥을어더먹고잇다가 금년륙십세의 늙은녀자의 몸으로도 엇지할수업서 그만한심한 생각과 못된자식들의 넘우나 야속한것을 주재소에 하소하랴 송파에왓다가 그전날비를만나 동리비인집에 드러와서 주림과 술품을못익여울나가 송파윤중삼(尹仲三)씨부인의가 옷안실을입어 생명을보존하얏다더라(송파)

鐵山旱災 텰산

텰산디방은 금춘이래 비가나리지안어 이앙을못한논 이백여덕보이나되는데 지금까지 한발이계속함으로 이미 이앙한것까지 전부 마른고라서 일반농민들은 에라는 가슴을부둥켜안고 검엣것도업서 눈물로 세월을보낸다하니 한발로인하야 인심이나날이 강박하여지고 쌀갑은나날이올나가니 빈약한농민의 생활이 일대문데라더라(텰산)

小學生의慘死

우차에서떠러저서

지난구일오후 열두시 사십분경 경북선산군 고아면문성동(高牙面文星洞) [illegible] 도로(道路)에서 학생한명이 소구두마(牛車)에서 떠러저즉사(即死)하엿는데 그원인을 들은즉 고아면송림동(高牙面松林洞)에사는 귀미공립보통학교이학년생황경범(黃璟範)(一一)과 동면귀평동 김문상(同面龜坪洞金文相)의두아이가 학교에갓다가 도라오는길에 마츰권괴장소에 온소구두마가 대두(大豆)를싣고가는데 차부도역시아는사람임으로 못지안코 구두마우에 올나안자가다가 마츰차부에게 들킨바되야 위험하다고 내려오라고할지음 소가놀나서 한번뛰자 구두마발통이 언덕으로떠러지매 실른짐과 올나안즌 아이는함께넘어저서 황경범은두골이깨여저서 무참이 죽엇고 김문상은요행니무사하엿다더라(귀미)

휘파람

▲요사이 충남강경(江景)에서는 젊은사람들사이에 당파가갈려가지고 서로반복(反復)을하야 심지어 어느단톄에서는 어듸를습격하겟다고날을내는게아니라 새로생긴 엇던단톄를 그엇던단톄에서 자긔네회에너코자 나면운동을하야서 그것이원인으로 그리된것이라고 전한다 ▲우리는 내용에잇서서 누가잘하고 누가못하얏는지 알도업고 또한알라고도할것 업스나 자성(自省)을하고 잘못된게 잇거든고치고 서로협력하야 일을해나가는것이 본의(本意)에 어그러지지안는 일일가한다 ▲엇잿든세상이장차 엇지되라고 이러케삼국지(三國誌)식이 되야가는지 한심한노릇 이야!

◇訂正 = 九日夕刊二面記事中十五峰衛國은東華藝術團의錯誤이기에茲에訂正함